



GMP 연합리트리트



<구리초세스 섬김이들>



<구리초세스 청소년 예배 후>



<GMP정기모임 in 쿠키스>



<도르트문트성결교회 방문>



<헤이그 이준기념교회 방문>

1. 모퉁이돌교회

일 년에 두 번(성탄절, 부활주일),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초청예배와 식사교제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부활절 초청에 응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늦지 않게 저들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리더 예트밀과 인드릿은 내부적으로 주일예배, 성경공부모임, 기도모임을 잘 이끌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국내외에 단체와 지도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알바니아 북부 지역의 교회 개척과 지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꾸준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남성들은 쿠키스 구치소 방문을 통해 수감된 입소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섬김들이 쌓여 그리스도의 선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임은 계속해서 가나안교회 청년들과 청소년/청년 선교 단체인 '영라이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거리인 쿠키스에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에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과 섬김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두 그룹의 성경공부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배워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7월에 있을 청소년 연합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인 디노레와 마틸다가 청소년모임을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교회 고등부 단기팀>



<로마한인성결교회 방문>



<베를린 유럽직할지방회>

지방회

작년 처음 유럽직할지방회에 참석한 후 유럽의 교단 교회 목사님들과 더 깊고 넓은 교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해도 참석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지방회도 옮겼는데 매우 잘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선교지 알바니아와 유럽 한인교회와의 연합으로 유럽 선교에 시너지를 내어 서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니아가 유럽 한인교회들에 새로운 선교지로 이름을 알림으로 선교 동원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2. 가정

각각 중학교 과정, 사춘기에 접어 들은 석주와 형주가 올해 드디어 엄마와 아빠의 키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석주와 형주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고국을 떠나 선교지인 알바니아에서 살게 한 것에 애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두 아이가 특권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족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생각과는 달리 다양한 이유들로 힘들어 하는 두 아이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사춘기 영향도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가정과 사역 그 사이 단체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중심에서 성실하게 애를 쓰며 버티고 있는 황순옥선교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GMP(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회)

필드대표로 섬기다 보면 단체에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내러 다니는 일 등의 단순한 일들과 더불어 이전과 달리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만남과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마다 갖게 되는 생각은 내 자신이 탑 리더 보다는 서브 리더에 더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해와 원대로 역할을 맡을 수만은 없으며 이전 대표들을 통해 받은 사랑의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되고 어렵더라도 임기 동안 만큼은 묵묵히 수고해야 합니다.

제가 남은 임기(9월)까지 필드대표로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회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인관계기술연마, SYIS 워크샵 수료식>



<해맑은 에마누엘과 함께>



<항상 내 다리에 앉는 베니시>



<드디어 동네 마켓에서 발견한 한국라면>

클릭! 하시면 이전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dropbox.com/sc/fo/j1ynttrt3atfjyfu1php/h?dl=0&rlkey=zjwhc1jsoifn57hn1zuyling>

소식

류병규선교사는 1월 헝가리 고)신기재 선교사님 추모예배 참석, 2월 독일 교단 지방회 참석, 3월 이태리 재외동포선거 투표 및 로마성결교회 방문, 4월 보스니아 GMP이사회 동행, 5월 GMP필드대표 회의의 참석을 위해 한 달간 한국에 입국합니다. 적지 않은 출장으로 귀한 시간과 댓가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남을 통해 의미있는 선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알바니아에 선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방문 동안 미뤄 뒀던 진료를 받을 예정인데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4. 에마누엘

주일학교에 몇 년간 꾸준히 출석하는 다섯 남매가 있습니다. 아기인 막내(6째)를 제외하고 에마누엘, 다니엘, 조니, 아리엘, 사라가 있는데 그 중 첫째 에마누엘(5학년)은 정인지체아동입니다.

에마누엘은 매주 예배시간 내내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크고 작은 소음을 냅니다. 당연히 적잖게 예배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마누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만날 때 마다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황순옥선교사가 주일 어린이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마치고 아이들 중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에마누엘이 손을 번쩍 들며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반신반의 하며 시켰는데 떠듬떠듬 기도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느 누구의 기도 보다도 더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은 몽클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마누엘을 비롯하여 다섯 명의 동생들 그리고 부모님께 세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쿠리초세스교회 청소년부 사역과 영라이프, 가나안교회 청년들과의 연합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2.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 성장하고 여름 연합캠프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3. GMP알바니아와 교단선교부 대표 역할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매주 티라나에서 쿠키스까지 오고가는 두 시간 길이 안전하도록
5. 가족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6.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7. 가족 모두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